운곡서원 향사

〈1면에서 계속〉

이날 축문으로써 "태사 권선생 전에 엎드려 아뢰건대 본조(本朝) 신라에 대한 마음을 밝혀 성인의 권도(權道)에 통달(通達)하셨으므로 이곳 경주에 의거하여 저희의 재물을 펴고 이에 3월을 맞았사온지라 삼가 맑은 술과 희생의 폐백으로 항상 받들어 올리는 예를 펼치오며 죽림권공(竹林權公)과 귀봉권공(龜峯權公)을 배식(配食)하오니 바라옵건대 흠향 하시옵소서." 라고 고(告)하였다.

이어 제례의식을 모두 마치고 본서원 안내로 권혁근 운영위원장은

▲제례전 집사분정(앞쪽 전면 권순국 초헌관, 가운데 손국익 아헌관, 정태권 종헌관

다가오는 11월 중순(음력10월10일) 경 두류지역 개발관계로 사정공(司正公) 휘 수해(諱 壽海) 봉산재사(鳳山齋舍) 재 중건 등 낙성식(落成

▲제례전 경덕사 사당 앞에서 사축장면

式)이 예정되오니 많은 참석을 공지하였다. 끝으로 이 지역 청년회 권동찬 경주청년회장, 권광택 안강청년회장 등은 회원들과 함께 전야 오식부터 제례 후 음복례 철상까지 받들

▲귀봉공 14세 후손 순국 초헌관이 헌작하고 있다.

어 모심으로써 이 지역 청년회는 어느 지역보다 숭조이념(崇祖理念)의 귀감이 되고 있다.

〈권범준 본원기자〉

생육신 충숙공 권절(權節)선생

충신 정려문(忠臣 旌閭門) 복원준공식

▲충숙공 권절선생 정려문 앞 권문 후손들이 준공 테이프 절단을 하고있다.

▲2013.4.15 11시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초등교 앞 제1근린공원에서 충숙공 권절 선생의 충신 정려문 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15일 11시 남양주시 별내동 제1근린공원에서 생육신 충숙공 율정(栗亭)권절 선생 '충신 정려문 복원 준공식'이 양주시 지역기관장을 비롯 지역유림 및 공(公)의 문중인 추밀공파집의충숙공 종중이 주관하여 복원준공식을 후손 및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진행은 권오중 족친의 사회로 국민의례로부터 권문(權門) 족친은 시조태사공 망배에 이어 참석한 내빈, 권문 종중회장단의 준공기념 테이프 절단식과 이어 내빈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권문의 소개로써 권중동(전 노동부 장관), 권익현(전 고문), 권영익(현 대종원부총재)등 이외 문중 지파종회장단 그리고 지역별 참석한 족친다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이용복 남양주시문화원장과 권문대표로 권중동 전장관, 권영익 대종원부총재 및 지파 종회장 순으로 축사를 하였다. 복원 준공식의 경과보고를 권오성 충숙공종중회장이 하였다.

생육신 충숙공 율정 권절 선생(1422~1494)은 서세후(逝世後) 208년 만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신으로 공인을 받았다. 숙종28년인 1702년 8월 4일 단종이 복위되면서 영월 유생(儒生) 주황(朱黃) 등의 상소로 장릉 창절사(彰節祠)에 팔현(八賢)으로 제향되고, 이듬해 숙종29년, 1703년 11월 16일 양주 유림의 상소로 별내면 덕송리 주을동 조역(兆域) 동구에 충신정려(忠臣旌閭)가 내렸으며 숙종34년, 1708년 3월 25일에는 좌의정 이유(李濡)의 상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지경연의금부사(兼知經筵義禁府事)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지춘추관성균관사(知春秋館成均館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에 추증되고 충숙(忠肅)의 시호를 받았다. 그러나 충신정문(忠臣旌門)이 선지 200여 년이 지난 1920년대에 불의의 산화(山禍)를 입어 정려문우(旌閭門宇)마저 훼철되는 변을 겪으며, 겨우 정판(旌版)을 수습해 타처인 광적면 우고리 후손가에 피안(避安)시키는 수난을 당하였다. 이같은 백년한(百年恨)을 씻고 선대의 위업을 계승현양(繼承顯揚)하고자 유지제중(有志諸宗)이 다시 모여 2001년 2월 8일 집의충숙공파종중(執義忠肅公波宗中)을 재건하고 선영(先塋)의 개봉축수호(改封築守護)와 훼철된 정려각(旌閭閣)을 복원중건하는 사업을 추진중 2008년에 남양주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서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이곳 별내동의 제1근린공원 내의 요지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3년, 금년 봄에 숙원의 충신정려문을 복원중건하게 되었다.

〈권범준 본원기자〉

安東權氏僕射公派宗會 定期總會 開催

▲복야공파종회 정기총회에서 권계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회장. 權啓東)는 4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 파종회관(派宗會館)에서 2013년(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권헌성(權憲成), 권오수(權五秀) 고문(顧問)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파족(派族) 2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영세(權寧世) 안동시장은 카누시설물개장 행사 관계로 회관에 잠시 다녀갔으며, 권정달(權正達) 안동권씨대종원 총재(總裁)는 참석하지 못하고 축하의 대형 생화(生花)를 보내 주었다. 권오익(權五翼)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國民儀禮), 시조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望拜), 상읍례(相揖禮), 회장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결산보고, 2013년도 예산안 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계동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각종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의 폐쇄와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장 폭발물테러 사건, 백악관에 독극물 편지를 보내오는 등 어수선한 국제정세(國際情勢)의 연속으로 불안한 가운데에도 우리 대종원과 파종회에서도 아무런 영향 없이 종무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며 젊은 층이 문중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신묘년에 「파종회지(派宗會誌)」 창간호를 발간하여 반질(頒帙)한데 이어 오늘 제2호를 발간하여 반질하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파종회지(派宗會誌)」는 다른 어떤 회지보다 우리 파(派)에 관련된 내용과 파종회(派宗會)를 통한 회원들의 활동사항과 작품들이 담겨 있어 더 뜻이 깊고 가치가 있는 회지라고 생각된다고 하며 어렵게 시작된 회지발간이 중단되지 않고 속간(續刊)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지 발간을 위해 성금(誠金)과 옥고(玉稿)를 보내주시고 회지발간(會誌發刊)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이 「파종회지(派宗會誌)」가 발간됨으로 우리 파의 내력을 소상히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숭조이념(崇祖理念)의 확립(確立)과 애족사상(愛族思想)을 고취(鼓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회장 인사말이 끝나자 회순에 따라 경과보고, 권택호(權宅鎬) 감사의 감사보고, 전년도 결산보고와 금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며 회칙개정, 회지발간 정산보고, 기타 토의 순으로 1시간에 걸쳐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한 파족(派族) 전원은 시내 장자방식당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로 점심식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다가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인탑씨 선출

▲안동 광석빌딩 파종회 사무실에서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조공파종친회는 지난 3월 17일 안동 광석빌딩 파종회 사무실에서 파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조 총무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기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 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문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3년간 적극 참여하여 준데 대하여 고마움을 전하며 오늘 신임회장단이 선출되면 보다 많은 성원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경과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에 들어가 권오탁씨를 임시의장으로 추천해, 권인탑씨를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씨는 신임사로 우리 파친 모두가 단합분발해 힘과 저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신임 권인탑회장(權仁塔·69·안동·36세)은 1968년 11월 농촌지도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영주농촌지도소장 및 농정국장 등, 38년간 근속했으며 모범공무원으로써 장관표창(2회)의 다수와, 옥조근정 훈장을 수훈했다. 현 대종원부총재, 안동 종친회부회장 등, 지역 서예작가로서 크게 활동하고 있다.

〈권혁세 가자〉

壬亂義士 松軒公(諱 如精) 春享祭 奉行

▲포항시 장도리(도장곡)에 있는 송헌공 휘 여정묘소에서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4월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장동리(도장곡) 松軒公의 묘소에서 원근의 후손 및 지방 유림 등 70여명이 참재하여 춘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松軒公(諱 汝精 : 좌윤공파 23세)은 조선조 宣祖 壬辰(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돌발하여 경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표종들과 연락하여 의병을 일으켜 경주 문천, 안강, 팔공산, 창녕 화왕산, 문경 당교, 울산 등의 전투에 참가하여 수많은 공적을 올렸으며, 또한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전투에 상훈을 논의함에는 모두 사피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옥봉 산하 송파(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 도남서당을 열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만년에 學行으로 철거되어 參奉을 지냈셨고, 松軒實記가 전한다.

이날의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권혁대, ▲아헌관 : 김길성, ▲종헌관 : 권오군, ▲대축 : 권혁근, ▲집례 : 권용하

(포항 권혁두)

추밀공파 저계종친회 총회

회장에 권중달 교수 선출

추밀공파 저계 종친회는 2013년 4월 12일에 종친회를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서구 검단면에서 종친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저계종친회는 인천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선영을 모신 선산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부득이 천장하게 되었고, 지난 2102년 12월에 '추밀공파저계묘원'을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에 조성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묘원을 더욱 예에 맞게 보완공사를 마무리 할 것과 향후 종친회 운영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또 임기 만료된 회장 권흥규옹이 사임함에 따라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였는데,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하여 향후 종사를 맡게 하였다. 신임 권중달회장은 종친회는 이날 '날이 갈수록 도시화되고, 개별화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심지어 가족이 파괴되는 등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종친회의 역할은 친족의 구심점을 잡아가서 화목한 족친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종친회의 활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서비스, 홈페이지의 운영이나 혹은 까페운영 등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친간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피차간에 근황을 알게 되어 마치 예전에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저계종친회)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 貞 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여기에서 부모에게 작위를 하사하였다 했다. 따라서 공 이날로 증 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공신의 어버이로서 가증加贈되어 輔祚공신보조功臣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이 되고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 추봉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가증加贈 우의정右議政으로 겸대직兼帶職도 부수되었을 터인데 이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 추축할 수가 없다. 한편 그로부터 다시 4년 뒤인 세조 8년 1462년 4월 14일에 공의 3자 화천군이 졸하여 실록에 그 졸기가 실려 있다. 화천군은 세조와 은의가 두터 워고 그 잠저 시부터 절친하였다. 화천군은 잠저 시 세조의 고모부가 되는 인척이거니와 그 졸기를 보면 왕실과 공의 집안과의 관계가 엿보이고 공의 집안이 특히 빈한하다 할 형평이었음도 짐작케 하고 있다.

기묘일 에 화천군 권공이 졸했다. 공의 자는 경부이고 강계절제사 복의 아들로 태종의 후궁 김씨의딸 숙근옹주를 상하여 화천군에 봉해 졌다. 을묘(세종17년1435년)의 해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고 일을 맞히고 돌아오다 통주(중국요동의 지방인 듯)에 이르렀는데 황제가 그가 부마임을 알고 소환하여 인견하고는 관대 및 의복 1습에 백은과 채단·보초지폐를 주어 보냈다. 뒤에 경상도도절제사가 되어 나가고 이윽고 화천위로 바꾸어 을해(세조1년 1455)에 다시 사은사가 되어 대명에 갔다. 상(세조)이 즉위하여 좌익공신을 받고 다시 화천군에 봉 해줬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이틀 동안 조회를 거두고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을 내렸다.

공은 소시에 궁술과 말 타기를 수업하였으며 10년 동안 도진무(3군 또는 5위에 딸린 으뜸 벼슬로 도총관의 원래이름)로 있었는데 매양 임금이 사냥 하거나 군사훈련을 사열 할 때에는 그 대장으로 임명했으며 사절이 모두 애경 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집이 가난하되 이를 편안하게 여겼으며 공무에 봉사함에는 쉽게 위험을 가려 피하지 않았다. 부음이 문달 되자 임금이 도승지 홍응에게 말하기를 내가 소시에 화천군의 집에 도달하여 나를 맞이하여 방에 들어갔는데 썰렁하고 탁주 몇 잔을 대접하는 지라 이를 마시고 나왔다. 평생 산업을 일삼아 경영하지 않고 비단이나 길을 좋아하는 습관이 없었으며 그 마음이 곧고 성실하여 일명하면 난색을 보이는 날이 없었으니 국가의 훈로勳勞가 있어 다른 부마와 비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시호를 내려 양효襄孝로하니 갑주얼 입고 훈로가 있음이 양襄이고 지혜롭고 부모를 애경하였으니 효孝라 하였다'. 한아들이 있으니 팽彭이다.

화천군이 이처럼 빈한하게 산 것은 그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많지 않은 데서도 기인했을 것이다. 화산부원군은 7남 3여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중년에 급사하였는데 그와 같은 여건으로 부유하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양효공이 일찍부터 무예를 익혀 도진무로 오래 재직하고 절제사로 나가며 중국에 사행을 다녀오는 등이다. 그 부친을 닮음이었을 것이다. 또 세조가 소시부터 화천군과 작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고 연배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세조는 태종 17년 1417년에 나서 1468년 52세로 승하한다. 화천군이 만약 세조와 동갑이라면 16세 숙근옹주를 상하여 화천군이 되고 19세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며 이때 부친상을 당하고 세조 8년 46세로 졸하는 것이 된다. 세조가 화천군을 좌익공신 3등에 책훈하고 그 부모의 관작을 추증 하면서 부친을 자헌대부 병조판서에서 6단계 높여 보조공신輔祚功臣 대광보국大匡輔國 숭록대부崇祿大夫 우의정右議政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으로까지 추봉한 것은 이수異數의 예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부자의 대한 임금에 특은이었을 것이다.

〈끝〉

향사 시 분정방법의 개선 공지

종시(宗是)인 숭조이념(崇祖理念)의 확립(確立)과 애족사상(愛族思想)의 고취(鼓吹)에 바탕을 두고 많은 족친이 태사묘(太師廟) 및 능동의 춘추향사에 참제 할 수 있도록 분정방법(分定方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1. 향사 당일 시도록(時到錄)에 근거하여 분정하던 것을 지양하고 평소에 참제를 잘 하지 않던 족친도 사전에 적임자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족친이 향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제하게 되고 당일 분정을 원활히 할수 있다.
2. 분정을 할 때에는 파종회장이 추천한 사항을 참고하여 연령과 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3. 매 향사(享祀) 분정록을 보관하여 이를 근거로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선임하여 여러 족친이 참여의식을 높인다.
4. 각 파종회장은 향사에 참제하는 족친이 계속 이어지도록 헌관이나 축, 찬자 이외의 역할에는 젊은 층의 족친들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5. 축이나 찬자 등 중요한 분야의 역할분담은 선임된 족친이 불참시를 대비하여 예비담당자를 선임 해 둘 수도 있다.
6. 계사년 춘향부터 상기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분정을 하여 총재의 결재를 득한 연후에 시행한다.
7. 전례위원장은 선임된 족친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당일 반드시 참제하도록 한다.

〈大宗院〉

推 薦 書(薦擧)

20 年 月 日(陰 月 日)

〈始祖 郎中公 太師廟〉享祀(春, 秋)

姓 名	
住 所	
派	
世數(生)	世(生 歲)
電 話	

上記와 같이 安東權氏(始祖, 郎中公, 太師廟) 重所任(都有司, 獻官, 齋有司, 陳設, 祝, 贊者, 謁者, 贊人, 其他)의 候補에 適格하다고 認定되므로 推薦합니다. ※ 해당되는 곳에○표

접수처 : 안동시 태화동418-1(안동권씨회관3층) 전송 : 054-854-2257 전화 : 054-854-2256

20 年 月 日 推薦人 印

安東權氏大宗院 貴中